



국제간호협의회 전문간호사업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Professional Nursing Service Committee, ICN.PSC)

参席報告

PSC위원 하 영 수

<윤희전문양이사·이대간호대학장, 이학박사>

지난 10월31일 오후 서북항공기(NWA)편으로 서울을 출발해서 Tokyo, Anchorage, Amsterdam을 거쳐 11월 1일 오전 Swiss Geneva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낯선 그곳에서 우리나라 대표부직원의 마중을 받아 편안히 미리 예약된 호텔(Grand Pie)에 도착할 수 있었음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의 Geneva의 일기는 맑고 생각보다는 따뜻하였다. 호텔에서 하루밤을 지낸후 ICN사무총장 Miss Fawkes가 보내

※사진 : ICN회장 Miss Olive Anstey씨, ICN총무 Miss Babara Fawkes씨, 중앙이 필자

은 예정표에 따라 다음날인 2일 아침9시에 ICN 본부에 도착하였다. 호텔에서 ICN본부까지는 보행으로 10분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여서 꽤 편리하였다.

ICN회장 Miss Anstey를 비롯하여 이번 PSC 모임을 위해 참석한 7명의 위원들과 WHO 간호대표, 적십자연맹 간호대표, ICN 사무총장, ICN 간호고문, PSC Secretary, 그의 여러 ICN직원들과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후 9시 30분에 본회의가 시작되어 참석하였다.

위원장 Miss Scott의 개회사에 이어 Anstey

회장으로부터 “과거에는 CNR에서 PSC위원을 추천해왔으나 이번에 ICN의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PSC위원을 선출하게된 이래 이번 PSC위원들이 처음으로 선정될바 기대가 크며, 특히 아시아 지역인 한국간호지도자에게 PSC위원이 위촉되어 ICN사업에 적극 참여하게된 것을 축하한다”는 치하가 있었다.

위원장의 사회로 위원들 각자의 소개가 있은 후(대부분의 위원들이 ICN 특별위원이나 간호고문 혹은 WHO 간호위원 등의 경력이 있었다) PSC Secretary인 Miss Rychelska로부터 이번 PSC모임을 위해 취해진 여러가지 경과보고가 있었다.

사전에 준비해서 배부된 회의일정을 받아들이고 작년(1976년) PSC의 회의록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오전 10시 15분에 10분간의 휴식을 취한후 회의는 속개되었으며, ICN의 정관이 정하는대로 CNR와 이사회에서 위촉된 여러가지 세계적간호의 당면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토의가 있었고 오후 5시에 폐회하였다.

오후 6시에 ICN본부 라운지에서 PSC위원들을 위시해서 관계기관의 대표자들, 그리고 이번 PSC모임에 관계되는 모두를 위한 리셉션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해졌다. 이 리셉션은 PSC를 위해 그곳에 모인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의 친분을 두터히 하자는데 주목적이 있었으나 본인은 여러위원들과 대표자들과 한국의 간호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을 갖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 서서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여러모로 실감하게 되었다.

다음날인 3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가 속개되었으며, 2일 오전 11시에는 WHO에 초대되어 “국제여행을 통한 질병만연의 위기”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고 훌륭한 점심초대를 받았다.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토의된 안전을 CNR와 이사회에서 위촉한 문제와 PSC의 장기계획의 설정 및 Florence Nightingale 기금활용 등을 내용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CNR과 이사회에서 위촉된 문제

(1) 새로운 의학기계와 기술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있어서의 간호원의 역할의 문제 : 기계사용으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따른 윤리, 도덕적 문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였으며, 특히 간호원의 역할에(임신중절, 유전상담 등) 있어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공식발표문(position statement)를 마련키로 했다

(2) 국제여행을 통한 전염병의 방지와 간호원의 역할 : 예방주사만으로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한 국제여행에 의한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는데 있어서의 간호원의 참여에 대해 토의하였고, WHC국제건강관리 지침을 토의하였으며, 이것을 참고로 하여 간호원의 역할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3) 간호원의 경제, 사회적 처우개선의 문제 : 이번 PSC회의 안전중 가장 중요시된 문제로 열띤 토의가 여러 측면에서 벌어졌다. 세계적으로 간호원들이 능력만큼 혹은 능력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간호원들이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각국의 간호협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고, 내년에 이 문제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갖기로 결의, 이사회에 추천키로 했다. 또한 이 세미나의 자료를 기초로 각국의 간호협회에서 활용 가능한 지침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4) 새로운 건강요원의 개발문제 : 세계의학협회(WMA)에서 다른 안전으로 건강요원으로서의 “의사조수(physician's assistant)”가 필요하며, 의사조수는 의사와 간호원사이의 요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WMA의 의견이다. 그러나 PSC모임에서는 새로운 건강요원의 역할은 간호원들의 1차건강관리 역할의 확대로 해결될 수 있으나 의사조수라는 명칭으로는 불가하다는데 합의하였

고 PSC에서 계속 토의연구키로 했다.

(5) 지역사회간호전달문제 : 근래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지역사회간호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하였고, 좀 더 기관간호중심에서 지역사회간호로 옮겨가는 실제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간호역할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간호가 실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6) ICN과 WHO의 자원활용의 문제 : ICN과 WHO 2개기관이 상호 회의에 참석할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과 발언의 범위규정에 관한 ICN의 정관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준 것을 이사회에 요청하기로 하였고, WHO에서 출간되는 모든 간호관계 문서를 ICN이 검토, 발췌하여 각국 간호협회에 순환 활용가능케 해주며, 또 WHO의 지역대표자회의에서 다루는 여러가지 간호관계에 대해서도 각국의 간호협회가 잘 인지하고 동시에 그러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키로 하였다(본인이 이 작업을 위해 담당위원을 맡게되었다).

(7) 간호학생의 정의 : 지난 5월 ICN 총회에서 세계간호학생대표가 이미 간호원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피선되므로 이 문제가 논란되었다. 간호학생이나 학생간호원이나의 명칭에 대해 진지한 토의끝에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학생간호원(Student Nurse)의 명칭을 적용하기로 합의, 학생간호원은 간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과 권리를 얻기위해 기초간호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II. Florence Nightingale 국제 기금활용문제

Florence Nightingale 국제기금(FNIF)의 활용방안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를 내년에 개최될 간호원의 경계, 사회적 처우 개선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간호교육, 간호직의 수준, 간호원의 역할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사업에 활용키로 합의하였다.

III. 앞으로 3년간의 PSC장기 회의 설정

이번 PSC에서 논의된 미해결문제를 위한 ICN의 공식발표 혹은 지침서를 마련하는 한편 간호연구에 있어서의 인간존중의 문제와 지역사회간호를 위한 역할확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키로 합의하였다.

끝으로 내년 PSC의 회의 기간을 현재의 3일에서 4일로 늘려줄 것을 이사회에 요청하기로 하였고 내년 PSC모임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갖기로 예정하고 PSC를 마쳤다.

다음날인 11월 5일 제네바의 여러 요소 즉 국제연합(WHO는 회의일정중 포함되어 방문할 수 있었다), 적십자연맹, 제네바대학을 비롯해서 유명한 Chillon성, 꽃시계, Le Lignon호수, 농장 등을 관광함으로써 큰 감명을 받았다.

다음날 오전 10시 스위스항공(SR)기편으로 제네바를 떠나 취리히, 아테네, 볼베이, 방콕, 홍콩을 거쳐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번 ICN의 PSC모임에 참석하여 ICN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적십자연맹(Red. Cross), 세계의학협회(WMA)등 관계기관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세계간호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맹활약중인 것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한국의 간호협회도 국제부 혹은 국제관계위원회를 설정, ICN과 보다 밀접한 유대를 가져 국제적 교류와 세계간호의 공동문제에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